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강박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 경 우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다른 정신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강박적 성행동의 위험도 COVID-19 확산 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강박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성인 참여자 404명(여성 225명, $M_{age}=45.01$, $SD_{age}=13.54$)을 모집하여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COVID-19 심리적 고통은 강박적 성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는 강박적 성행동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의 영향이 부정적 정서신념과 충동성의 수준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고통은 부정적 정서신념이 강한 경우에만 강박적 성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충동성이 높은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다. 본 결과는 팬데믹의 장기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취약성이 상승한 상황에서 정서와 인지, 성격 특질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강박적 성행동을 예측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주요어: 강박적 성행동 장애, 심리적 고통, 정서신념, 충동성, COVID-19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혜인,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장기간 지속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예, 초과 사망, 산업 침체, 교역 축소, 가계경제 악화 등)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Keni, Alexander, Nayak, Mudgal, & Nandakumar, 2020; McKibbin & Fernando, 2021; Shiels et al., 2021),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충동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Bahk et al., 2020; Shah, Mohammad, Qureshi, Abbas, & Aleem, 2021). 이에 많은 국가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팬데믹 기간에 위험이 증가한 정신건강 문제들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Goldman et al., 2020; Li et al., 2020). 한국도 마찬가지로, COVID-19 관련 요인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며 정부 및 학계의 대응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박경우, 장혜인, 2021b; 보건복지부, 2021; 최설, 2021).

병적 성행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취약성 역시 COVID-19와 함께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inclair et al., 2021). 병적 성행동이 만성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임상 용어로는 성중독(Sex addiction), 성욕과다증(Hypersexuality), 강박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CSBD) 등이 사용되는데(Kafka, 2010a; Kraus, Voon, & Potenza, 201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지난 1월부터 발효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ICD-11)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진단지침을 수록하면서 이를 공식 진단명으로 인정하였

다(Grant et al., 2014).

강박적 성행동 장애(이하 CSBD) 환자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성적 충동과 욕구로 인하여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WHO, 2021), 일상 기능 및 생산성 저하(Kraus et al., 2018),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나 기타 성병을 비롯한 질병에의 위험 노출(Kafka, 2010b; Yoon, Houang, Hirshfield, & Downing, 2016), 우울증과 섭식장애, 물질사용장애 등 다른 정신건강 문제의 취약성 증가(Ballester-Arnal, Castro-Calvo, Giménez-García, Gil-Juliá, & Gil-Llario, 2020; Siu-ming, Phyllis, Cherry, Kwok, & Lau, 2019), 부부 갈등(Kafka, 2010b), 성범죄 관여(Efrati, Shukron, & Epstein, 2019; Kingston & Bradford, 2013) 등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인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증상이 한번 심화되면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고 완화되더라도 쉽게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Kafka, 2010a; Kaplan & Krueger, 2010), 지금처럼 사회 전반적 우려가 증가한 상황에서는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여 개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CSBD나 다른 병적 성행동 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가 그동안 매우 부족하였던 까닭에(박경우, 장혜인, 2021a; Grubbs, Grant et al., 2020), COVID-19 확산 전후의 CSBD 유병률이나 증상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성행동과 관련한 몇몇 조사자료를 토대로 작금의 팬데믹 사태가 한국에서도 CSBD 위험성을 심화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경찰청(2021)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3,537건, 2020년 21,717건으로 대다수 유형에서 팬데믹 전과 발생 건수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였으나, 풍속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하는 경우가 잦은 성범죄는 2019년 2,172건에서 2020년 4,6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독포럼(2020) 조사 결과에서는 CSBD의 주요 행동 양상 중 하나인 음란물 사용의 빈도 및 시간이 팬데믹 이후 한국 성인들 사이에서 증가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병적 성행동 경향을 나타내는 성범죄자의 비중은 한정적이며(Kingston & Bradford, 2013) 음란물 사용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Grubbs, Lee, Hoagland, Kraus, & Perry, 2020). CSBD 진단의 핵심은 과도한 사용보다 조절의 어려움과 부정적 결과 경험에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상기한 자료들은 작금의 상황이 온라인 성행동(예, 사이버섹스, 음란물 사용 등)을 중심으로 CSBD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연구들 역시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상의 성행동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Lehmiller, Garcia, Gesselman, & Mark, 2021; Mestre-Bach, Blycker, & Potenza, 2020),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로 여겨진다(Banerjee & Rao, 2021; Ibarra et al., 2020). 특히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보급률이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익숙해져 있기에(OECD, 2021), COVID-19 확산 이후 더욱 많은 사람이 온라인 성행동에 매진하고 병적인 형태(즉, 강박적 성행동)로까지 발전하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팬데믹이 이어지는 와중에 사회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만큼(Gössling, Scott, & Hall, 2020), 정신건강 악화의 심리사회적 원인도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여기에는 전술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문화 확산과 관련한 외부 활동과 대인관계의 축소(de Lima et al., 2020; Killgore, Cloonan, Taylor, & Dailey, 2020), 직업적 불안정성 및 가계 부담 증가(Hertz-Palmor et al., 2021; Witteveen & Velthorst, 2020), 방역 투입인력의 업무 가중(Connor et al., 2020)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자들은 이 중에서도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에 주목하였다. 심리적 고통은 상기한 요인들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고(McGinty, Presskreischer, Han, & Barry, 2020; Liu, Heinzl, Hauke, & Heinz, 2021; Walton, Murray, & Christian, 2020),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자체로 인해서도 유발되곤 한다(Mohammed et al., 2015; Qiu et al., 2020; Schwerdtle, De Clerck, & Plummer, 2017). 실제로 많은 이들이 COVID-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정신건강 문제 취약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Bahk et al., 2020; Megalakaki et al., 2021).

COVID-19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하 COVID-19 심리적 고통)은 강박적 성행동(이하 CSB)에도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은 심한 스트레스나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CSB에 몰두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안하였는데(이혁진, 이수정, 2014; Engel et al., 2019; Odlaug et al., 2013), 이와 같은 기제가 COVID-19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 까닭이다. 더구나 반복적인 CSB는 역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

할 수도 있기에(Kraus et al., 2018), 팬데믹 기간 중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경험하고 그 영향으로 CSB에 빠져든 개인들은 이것이 다시금 심리적 고통을 초래함으로써 증상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COVID-19 심리적 고통이 실제로 CSB를 증가시키는 지 확인하고 그 관계가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위험군을 식별하는 작업은, CSB가 임상적 수준(CSBD)까지 이르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들을 조기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emotions)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다. 정서에 대한 신념은 메타인지 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Manser, Cooper, & Trefusis, 2012), 정서적 경험이나 그 원인, 예상되는 결과, 자기개념에의 함의 등에 대한 도식(schema)을 가리킨다(Edwards & Wupperman, 2019). 이러한 정서신념은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대처 양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Manser et al., 2012; Predatu, David, & Maffei, 2020). 특히, 정서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이 부적응적일뿐더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믿는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려 들기 쉬운데(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mann, 2006; Sydenham, Beardwood, & Rimes, 2017), 이는 되려 정서적 어려움을 심화하고 장기화시키곤 한다(Barr, Kahn, & Schneider, 2008; Oldershaw et al., 2012; Wenzlaff & Wegner, 2000). 이러한 유형의 신념은 흔히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 또는 부정적 정서신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박가현,

김시형, 이동훈, 2020; Tran & Rimes, 2017).

성행동에의 과도한 몰두 역시도 부정적 정서로부터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에(Giugliano, 2006), 부정적 정서신념이 높은 개인들이 심리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롭지만 손쉬운’ 대처 방안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Lew-Starowicz, Lewczuk, Nowakowska, Kraus, & Gola, 2020). 더구나 몇몇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성행동을 반복할 경우 병리화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Laier & Brand, 2017; Wéry & Billieux, 2016). 즉,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높은 부정적 정서신념이 CSB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종의 선로전환기이자 강화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신념이나 회피적 대처 양식이 정서와 문제성 행동(예, 섭식 문제,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확인한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Cheng et al., 2015; Oldershaw et al., 2012; Sulkowski, Dempsey, & Dempsey, 2011). 더군다나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Moon et al., 2018) 개인의 자유로운 정서 표현이 지양되는 경향이 있고, 때문에 서구권보다 부정적 정서신념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박가현 등, 2020; 최해연, 민경환, 2005). 이를 고려하면 부정적 정서신념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Bahk et al., 2020; Daly & Robinson, 2021) 한국의 문화특수적인 CSB 발현 경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기한 요인들 간의 관계만으로는 부정 정서로부터의 여러

회피 수단 중 하필이면 CSB가 발달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impulsivity)에서의 개인차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높은 충동성은 충동조절장애나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의 공통된 소인이며, 이외에도 다양하고 부적응적인 위험감수 행동을 설명하는 초진단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Coskunpinar, Dir, & Cyders, 2013; Cyders, Coskunpinar, & VanderVeen, 2016; Kale, Stautz, & Cooper 2018). 병적 성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에 따라 충동성 하위요인들의 영향에 일부 차이가 보고되기는 하나 충동성이 높을수록 CSB에 몰두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Bóthe et al., 2019; Zapolski, Cyders, & Smith, 2009; Zsila, Bóthe, Demetrovics, Billieux, & Orosz, 2020). 충동성이 높은 개인들은 행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즉각적이고 빠른 보상을 제공하는 행동에 높은 선호를 나타내며(Martin & Potts, 2009), 상기하였다시피 CSB는 그러한 행동의 일례일 수 있다(Lew-Starowicz et al.,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충동성은 부정적 정서신념을 지닌 개인들이 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행동적 대안을 고르는 과정에서 근시안적 편향을 발생시킴으로써 CSB가 지닌 유인가를 부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정서신념이 높은 조건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충동성이 높은 조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Brand, Young, Laier, Wölfling과

Potenza(2016) 및 Brand 등(2019)이 제안한 개인-정서-인지-집행 상호작용(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I-PACE) 모형(Brand et al., 2016, 2019)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 I-PACE 모형은 물질사용장애와 행동중독에 대한 심리적 및 신경과학적 이론을 결합하여 CSB와 같이 중독성으로 분류되는 행동의 발현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독성 행동의 기저에 있는 다양한 요인과 그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성화 단계에 따라 각 요인이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변화하나, 어느 단계에서든 내부 또는 외부의 촉발 자극이 고유한 취약성(P)을 가진 개인의 정서적(A), 인지적(C) 반응을 유발하여 중독성 행동으로 이어지며, 실행기능/억제통제 능력(E)이 그 경로에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COVID-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요인에 의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은 정서 경험에 대한 인지적인 신념과 상호작용하며 CSB를 촉발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으며 높은 충동성이라는 성격 특질을 나타내는 개인들에게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실행기능의 개인차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위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팬데믹 기간 중 한국인의 CSB 발현에 관여하는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과 그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COVID-19 팬데믹 기간의 병적 성행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현상적인 이해나 환경적 위험요인 탐색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아(Mestre-Bach et al., 2020; Sinclair et al., 2021), 임상적 개입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나마도 국내에는 이뤄진 연구가 없기에 여러 위험신호에도 불구하고(경찰청, 2021; 중독포럼, 2020) 한국인에게 적합한 위험군 선별 및 대응 전략 설계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CSB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현 팬데믹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참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OVID-19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경험할수록 강박적 성행동이 심할 것이다.

가설 2. COVID-19 심리적 고통과 강박적 성행동의 관계는 부정적 정서신념과 충동성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부정적 정서신념이 높은 조건에서 COVID-19 심리적 고통이 강박적 성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조절효과는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만 유의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패널을 모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6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이거나 유사한 문항에서 응답의 일관성이 낮았던 참여자를 제외한 404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9~69세였으며($M_{age}=45.01$, $SD_{age}=13.54$), 남성

이 179명(44.3%), 여성 225명(55.7%)으로 여성 참여자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

연구에 앞서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SKKU 2021-01-019-001), 전체 참여자에게 연구 설명문을 제공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동의한 참여자들은 설문조사 업체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을 마친 후 소정의 사례를 지급받았다. 한편, 참여자 모집과 자료 수집은 모두 팬데믹 선언 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년 2월 중에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한국어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Scale: K-CSBD-19). Bóthe 등(2020)이 개발하고 본 연구자들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K-CSBD-19; 박경우, 장혜인, 2021a)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CSB 증상을 측정하였다. K-CSBD-19는 총 19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참여자들은 “성적인 활동이 나의 일이나 학업에 방해가 되었다”, “성적인 갈망과 욕구를 통제할 수 없었다”, “성행위를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등의 문항을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함(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CSB 증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박경우와 장혜인(2021a)은 48.5점을 초과할 시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CSBD-19는 여러 문화권 참여자를 대상으로 .90~.94 수준의

양호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나타내었으며 (Böthe et al., 2020), 본 연구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한국어판 척도의 내적합치도도 .94로 높았다(박경우, 장혜인, 2021a).

COVID-19 외상 증 고통 척도(COVID-19 Peritraumatic Distress Index: CPDI).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Qiu 등(2020)이 개발한 척도의 영문판(Jahanshahi, Dinani, Madavani, Li, & Zhang, 2020)을 Bahk 등(2020)이 한국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0점)”부터 “거의 항상 경험했다(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더욱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Bahk 등(2020)의 연구에서 확인한 CPDI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양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93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BES-K). 부정적 정서신념을 측정하고자 Rimes와 Chalder(2010)가 개발하고 박가현 등(2020)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K)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써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가현 등(2020)이 확인한 BES-K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한국판 단축형 UPPS-P 충동적 행동 척도 (Short Version of the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K-SUPPS-P).

K-SUPPS-P는 다차원적 충동성 측정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UPPS-P 충동적 행동 척도 (Cyders & Smith, 2008; Whiteside & Lynam, 2001)의 단축형(Lynam, 2013)을 Lim과 Kim(2018)이 한국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이다. “매우 동의함(1점)”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음(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충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Lim과 Kim(2016)의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7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연구에 포함된 모든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8.0 버전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변인의 분포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한 CSB 증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 (Odlaug et al., 2013)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성별을 더미 코딩한 뒤 CSB 수준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유의한 성차가 있을 경우 이후 분석에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우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

계에서 성별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제된 후 2 단계에 COVID-19 심리적 고통을 투입하여 CSB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COVID-19 심리적 고통과 CSB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신념과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및 충동성을 포함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설 2)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4.0의 Model 3을 분석하였다(Hayes, 2021). 이때, 위계적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 처리를 거친 독립변인들을 곱하여 생성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향상하고(Hayes, 2013), 이를 위한 재추출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면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조절변인 평균 및 ± 1 표준편차 지점에서의 조건부 효과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전체 변인은 왜도 통계량이 $-0.62 \sim 1.15$, 첨도 통계량이 $0.14 \sim 1.21$ 사이로, 정규분포를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Kim, 2013).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은 모두 CSB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COVID-19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경험할수록, $r=.32, p<.001$, 부정적 정서신념이 강할수록, $r=.15, p=.002$, 충동성이 높을수록, $r=.41, p<.001$, CSB가 높게 나타났다. COVID-19 심리적 고통은 CSB 외에 부정적 정서신념, $r=.13, p=.010$, 이나 충동성, $r=.35, p<.001$, 과도 유의하고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면, 부정적 정서신념과 충동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r=-.03, p=.554$.

CSB 점수에서의 성차 분석

성별에 따라 CSB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다음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1. COVID-19 심리적 고통	-			
2. 부정적 정서신념	.13*	-		
3. 충동성	.35***	-.03	-	
4. 강박적 성행동	.32***	.15**	.41***	-
평균(M)	42.95	51.00	40.11	30.02
표준편차(SD)	13.52	11.83	7.27	9.35

주. * $p<.05$, ** $p<.01$, *** $p<.001$.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 참여자들의 K-CSBD-19 평균 점수는 33.26점($SD=9.87$), 여성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27.45점($SD=8.05$)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6.37$, $p<.001$. 합계 48.5점 이상을 받아 CSBD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참여자의 비율도 남성 6.7%(12명), 여성은 1.3%(3명)로 남성 참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모든 분석 모형에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성별은 CSB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5.808$, $p<.001$, CSB 변산의 9.6%를 설명하였다, $F(1, 402)=42.46$, $p<.001$. COVID-19 심리적 고통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모형은 CSB 변산에 11.1%의 증분 설명량을 가졌으며, $F(1, 401)=56.01$,

$p<.001$,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도 유의하였다, $B=0.231$, $p<.001$.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과의 상호작용 효과

PROCESS macro Model 3를 사용하여 CSB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의 주효과, 부정적 정서신념과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COVID-19 심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가설 2)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COVID-19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전체 모형은 CSB 변산의 31.87%를 설명하였으며, $F(8, 395)=23.10$, $p<.001$, 성별, $B=-4.974$, 95% CI[-6.55, -3.40], COVID-19 심리적 고통, $B=0.128$, 95% CI[0.06, 0.19], 충동성, $B=0.393$, 95% CI[0.28, 0.51], 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상

표 2. CSB 성차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	여	
강박적 성행동	33.26(9.87)	27.45(8.05)	-6.37***

주. *** $p<.001$.

표 3.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종속변인: 우울			
		B	β	R^2	ΔR^2
1단계	성별	-5.808	0.891***	.10***	
2단계	성별	-6.168	0.837***	.21***	.11***
	COVID-19 심리적 고통	0.231	0.031***		

주. *** $p<.001$.

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CSB에 대한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COVID-19 심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 $B=0.005$, 95% CI[-0.00, 0.01], COVID-19 심리적 고통×충동성, $B=0.004$, 95% CI[-0.00, 0.01], 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 $B=0.003$, 95% CI[-0.01, 0.01]. 반면, COVID-19 심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0.001$, 95% CI[0.00, 0.00].

삼원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자 우선 충동성의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 집단을 구분하여 CSB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후 표 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COVID-19 심리적 고통과 CSB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신념이 가지는 조절효과는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만 유의하였고, $B=0.009$, $p<.001$, 충동성이 평균 수준이거나, $B=0.005$, $p=.07$, 낮은 조건에서는, $B=-0.000$, $p=.97$,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높은 충동성 조건에서 부정적 정서신념의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표 4.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이 CSB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변인	종속변인: 강박적 성행동				
	B	S.E.	t	95% CI	
				LL	UL
성별	-4.974	0.80	-6.20***	-6.55	-3.40
COVID-19 심리적 고통	0.128	0.03	3.83**	0.06	0.19
부정적 정서신념	0.063	0.04	1.77	-0.01	0.13
충동성	0.393	0.06	6.66***	0.28	0.51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0.005	0.00	1.79	-0.00	0.01
COVID-19 심리적 고통 ×충동성	0.004	0.00	0.99	-0.00	0.01
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	0.003	0.00	0.68	-0.01	0.01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	0.001	0.00	2.07*	0.00	0.00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 $p<.05$, ** $p<.01$, *** $p<.001$.

표 5. 충동성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이 CSB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충동성	종속변인: 강박적 성행동			
	B	F	df 1	df 2
-1 표준편차	-0.000	0.00	1	395
평균	0.005	3.22	1	395
+1 표준편차	0.009	12.57***	1	395

주. df = degree of freedom.

*** $p<.001$.

표 6. 충동성 상위 집단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부정적 정서 신념 수준	종속변인: 강박적 성행동				
	B	S.E.	t	95% CI	
				LL	UL
-1 표준편차	0.049	0.05	0.95	-0.05	0.14
평균	0.157	0.04	4.31***	0.09	0.23
+1 표준편차	0.267	0.05	5.76***	0.18	0.36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 $p < .001$.

고통과 CSB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표 6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COVID-19 심리적 고통은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이 높거나, $B=0.267$, 95% CI[0.18, 0.36], 평균일 때만, $B=0.157$, 95% CI[0.09, 0.23], CSB를 예측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이 낮으면 CSB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B=0.049$, 95% CI[-0.05, 0.14].

논 의

COVID-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고통 경험은 여러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Bahk et al., 2020; Shah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CSB 증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성인의 CSB 위험은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CSB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도 지지되었다. COVID-19 심리적 고통은 부정적 정서신념이 강한 경우에만 심각한 CSB를 예측하였고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은 충동성이 높은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정서 요인

으로 분류되는 심리적 고통의 영향은 인지 요인인 정서신념 수준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조절 효과는 전제조건으로 성격 특질 요인인 충동성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특질적인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으로 나타난 정서 요인과 특정 대처 양식을 유도하는 인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CSB로 연결되는 과정은 I-PACE 모형에서 제시한 중독성 행동의 발생 기전과 맥락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Brand et al., 2016, 2019). 전술하였듯이 I-PACE 모형은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이나 아동기 경험, 성격 특질을 비롯한 개인의 핵심 특성이 전제되고 환경적 촉발 요인과 다양한 내적 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중독성 행동이 발생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팬데믹 하에서의 CSB 위험 증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을 중심으로 병적 쇼핑과 도박장애 등 다양한 행동중독 영역에 적용되는 I-PACE 모델의 이론적 틀이(Elhai, Yang, Dempsey, & Montag, 2020; Orlowski et al., 2020; Trotzke, Müller, Brand, Starcke, & Steins-Loeber, 2020) 병적 성행동 연구 및 예방 전략 설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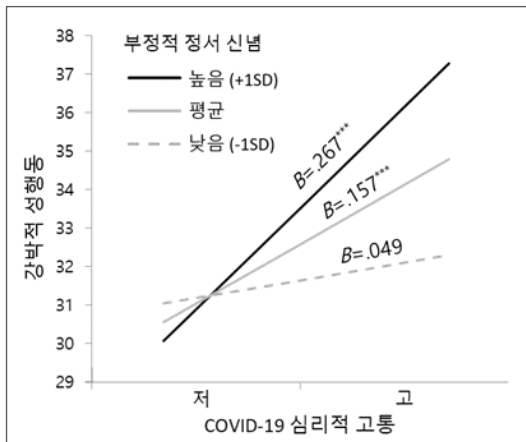


그림 1. 충동성 상위 집단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주. *** $p < .001$.

본 연구의 또 다른 함의는 그간 병적 성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서신념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것이 CSB 발현 과정에서 가지는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데 있다. 그간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회피적인 대처와 CSB의 관계를 제안하는 연구들은 발표된 바 있으나(Engel et al., 2019; Odlaug et al., 2013; Schultz, Hook, Davis, Penberthy, & Reid, 2014), 이러한 회피적 대처를 촉발하는 기저 원인으로 정서신념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Bianchi 등(2021)은 팬데믹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대처 전략으로 온라인을 통한 성행동(sexting)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번에 얻은 결과는 부정적 정서신념의 개인차가 이처럼 회피적이고 역기능적인(Schultz et al., 2014) 대처 패턴을 설명하는 개인 내적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부정적 정서신념은 심리적 고통이 촉발된 상태에서 대처 양식의

편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고통 자체를 가중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것이 부적응적이고 수용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은 심리적 고통을 인식했을 때 불안, 수치심과 같은 이차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Corstorphine, 2006; Siu-ming et al., 2019), 이렇게 일차와 이차 정서가 중첩된 결과로 CSB 취약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id et al., 2014). 이번에 확인된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의 상호작용효과에는 이와 같은 이차 정서의 영향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정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더 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안되고 있으므로(박가현 등, 2020; 최해연, 민경환, 2005), 문화비교 연구를 통하여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충동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CSB 예측요인이었으며, 동시에 다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였다. 다만 충동성의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충동성은 흔히 다차원적 구성 개념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지지만(Sperry, Lynam, Walsh, Horton, & Kwapil, 2016), 각각의 하위요인과 CSB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데다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는 까닭에(Bóthe et al., 2019; Zapolski et al., 2009; Zsila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 지식 획득을 목표로 이를 단일 요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향후에 신뢰로운 경험적 근거가 충분히 누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충동성 하위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에 확인된 요인 간 관계를 다시 검증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CSB 역시 세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형에 투입하여 정서 및 인지, 성격 특질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COVID-19 팬데믹은 CSBD 표현형 가운데 사이버 섹스나 음란물 사용을 비롯한 온라인 성행동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Lehmiller et al., 2021; Mestre-Bach et al., 2020), 다른 유형의 성행동과 관계가 적다고 단언하기에는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 신념, 충동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전반적인 CSB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기제를 통해 CSB가 발달하는 개인들에게서 유독 두드러지는 성행동 세부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주된 성행동 유형에 따라서 주요한 CSB 위험요인과 기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Antons & Brand, 2021), 이와 같은 후속연구는 CSB에 관한 학문적 이해 향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이번 연구 결과는 높은 충동성과 더불어 심리적인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을 보이는 사람들이 COVID-19와 같은 감염증 확산 또는 유사한 재난 시기에 CSB 우려가 높은 취약 집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역기능적 정서 대처 수단으로 CSB에 몰두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렇기에 과거에 정서 대처를 목적으로 CSB를 나타낸 이력이 있다면(성행동으로 정서에 대처하는 도식이 형성된 상태라면) CSB에 대한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충동성은 병적 성행동

외에도 폭식, 도박, 물질사용장애 등 조절되지 않는 행동과 관계된 정신건강 문제의 초진단적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Bóthe et al., 2019; Bottesi, Ghisi, Ouimet, Tira, & Sanavio, 2015; Dawe & Loxton, 2004) 치료의 더딘 진행과 중도 탈락, 좋지 못한 예후와 관련된다고 알려진 만큼(Álvarez-Moya et al., 2011; Loree, Lundahl, & Ledgerwood, 2015; Manasse et al., 2016), 취약한 개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은 CSB와 공병 증상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개입 비용까지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선별된 취약군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인지-정서-행동치료(Cognitive-Emotional-Behavioural Therapy: CEBT)나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는 심리적인 고통과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결합된 사례에 적합한 치료 전략으로 제안되며(Corstorphine, 2006; Rimes & Wingrove, 2013), CSB의 예방 및 완화에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충동성을 포함한 성격 특질은 성인기 이후로는 대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치료적 개입 효과도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Damian, Spengler, Sutu, & Roberts, 2019; Hershberger, Um, & Cyders, 2017; Schag et al., 2019). 그러나 최근에는 성격 특질도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반론이 다수 제기되는 바(Allemand & Flückiger, 2017; Roberts et al., 2017), 충동성을 표적으로 한 개입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연구의 주요 목표는 아니었으나 본 연구자료에서 남성의 CSB 증상이 높았고 전체

연구 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도 성별이 CSB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CSB의 성차는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이다. 다수의 연구자가 CSB를 남성에게 두드러지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Bóthe et al., 2020; Odlaug et al., 2013), 표본과 측정방식, 혹은 연구자 선입견에 따른 차이일 뿐 실제 성차는 크지 않다는 견해 역시 제기되고 있다(Derbyshire & Grant, 2015; McKeague, 2014). 한국의 경우, 남성에게서 병적 성행동이 빈번함을 시사하는 자료가 있으나(박효정, 강숙정, 2013; 질병관리본부, 2015)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ICD-11 진단 지침(WHO, 2021)에 기초한 최신 척도인 CSBD-19를 사용하여(Bóthe et al., 2020) CSB 증상을 온라인 검사로 평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표본(예, 임상군)과 측정방식을 활용한 연구 결과와 함께 한국 사회의 CSB 성차를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Bóthe 등(2019)은 충동성과 병적 성행동의 관계에도 성차가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후속연구에서는 CSB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이 성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횡단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까닭에 변인 간 인과관계 해석이 제한된다. 연구 모형에서 가정된 방향과는 반대로 CSB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으며(Kraus et al., 2018), 증상이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각 변인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Brand et al., 2019).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 간 선후

관계를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온라인 자기보고 검사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데 있다. 온라인 패널이라는 참여자 특성에 의해 편향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자기보고 검사의 특성상 기억 왜곡이나 망각에 따른 편향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측정방식은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특히 여성들의) 성적 경험이 솔직하게 응답되지 않을 위험(질병관리본부, 2015; Alexander & Fisher, 2003)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타당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Kreuter, Presser, & Tourangeau, 2008). 아울러, I-PACE 모델의 이론적 틀을 참조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E' 요소에 해당하는 실행기능/억제통제 능력이 다뤄지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양호한 실행기능은 CSB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며, 더군다나 본 연구 참여자와 같은 비임상군의 경우 실행기능의 개인차가 위험을 내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Brand et al., 2016, 2019; Schiebener & Brand, 2015). 향후 실행기능 관련 변인(예, 작업기억용량)까지 포함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해본다면 CSB 발현 기전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비임상군 대상의 연구였던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찰해보아야 할 사항은, 이번에 확인된 요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CSB 점수가 상승하였다고 해서 실제로 강박적 성행동 장애(CSBD)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기하였듯 본 연구의 CSB는 ICD-11의 CSBD 준거에 기초한 CSBD-19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CSBD-19에서의 높은 점수는 성행동에 단순히 몰

두하는 것을 넘어 조절 문제, 부정적 결과, 금욕 후 재발 등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Bóthe et al., 2020), 이를 고려하면 일반군에서의 CSB 점수 상승을 병리화 위험 지표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미 CSBD를 진단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I-PACE 모델에서는 중독성 행동의 만성화 단계에 따라 행동의 유발 요인과 그 영향력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rand et al., 2016, 2019).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일반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상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을 반복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CSB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상호작용하며, 그 양상이 개인의 충동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CSB를 위시한 병적 성행동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정신건강 문제로, 팬데믹 기간 중 그 위험이 증가했을 가능성에 대해 학계와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COVID-19의 치명률이 점차 낮아지고 대응 역량은 향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리라 기대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후유증과 사회 변화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되거나 고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손은정 등, 2021; Amankwah-Amoah, Khan, Wood, & Knight, 202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병적 성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설계 및 후속 연구 촉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21). 경찰청범죄통계. 통계청. 2021년 9월 28일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conn_path=I2
- 박가현, 김시형, 이동훈 (2020). 한국판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97-114.
- 박경우, 장혜인 (2021a). 한국어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 (K-CSBD-19)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5), 859-879.
- 박경우, 장혜인 (2021b).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소득 변화와 소득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435-455.
- 박효정, 강숙정 (2013).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그 현황과 성지식, 성태도와의 상관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3), 608-618.
- 보건복지부 (2021.06.02.). 코로나 장기화로 정신건강 저하...고위험군 심리지원 강화. 2021년 9월 28일 검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245>
- 손은정, 송명진, 윤정섭, 정미애, 정일영, 추수진 (2021). 미래연구 포커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양극화 전망.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혁진, 이수정 (2014). 대학생의 사이버 섹스 몰입의 정도에 관한 연구: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5(1), 29-44.
- 중독포럼 (2020).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행동변화 실태조사. 서울: 중독포럼.
- 질병관리본부 (2015). 전국 성의식 조사. 세종: 질병관리본부.
- 최설 (2021). 코로나 시대의 건강심리 서비스: 원격 심리치료의 효과와 이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1), 1-20.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Alexander, M. G., & Fisher, T. D. (2003). Truth and consequences: Using the bogus pipeline to examine sex differences in self reported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40*(1), 27-35.
- Allemand, M., & Flückiger, C. (2017). Changing personality traits: Some considerations from psychotherapy process-outcome research for intervention efforts on intentional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7*(4), 476-494.
- Álvarez-Moya, E. M., Ochoa, C., Jiménez-Murcia, S., Aymamí, M. N., Gómez-Peña, M., Fernández-Aranda, F., ... & Menchón, J. M. (2011). Effect of executive functioning, decision-making and self-reported impulsivity on the treatment outcome of pathologic gambling. *Journal of Psychiatry & Neuroscience, 36*(3), 165-175.
- Amankwah-Amoah, J., Khan, Z., Wood, G., & Knight, G. (2021). COVID-19 and digitalization: The great acceler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6*, 602-611.
- Antons, S., & Brand, M. (2021). Diagnostic and Classification Considerations Related to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and Problematic Pornography Use. *Current Addiction Reports, 8*(3), 452-457.
- Bahk, Y. C., Park, K., Kim, N. E., Lee, J. H., Cho, S. R., Jang, J. H., & Choi, K. H. (2020).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355-367.
- Ballester-Arnal, R., Castro-Calvo, J., Giménez-García, C., Gil-Juliá, B., & Gil-Llario, M. D. (2020). Psychiatric comorbidity in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CSBD). *Addictive Behaviors, 106384*. <https://doi.org/10.1016/j.addbeh.2020.106384>.
- Banerjee, D., & Rao, T. S. S. (2021). "#Intimacy" at Times of COVID-19: The Renewed Impetus Behind Cybersex. *Journal of Psychosexual Health, 31*, 13-17.
- Barr, L. K., Kahn, J. H., & Schneider, W. J.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Hierarchical structure and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10), 1045-1077.
- Bianchi, D., Baiocco, R., Lonigro, A., Pompili, S., Zammuto, M., Di Tata, D., ... & Laghi, F. (2021). Love in Quarantine: Sexting, Stress, and Coping During the COVID-19 Lockdown.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14.
- Bóthe, B., Potenza, M. N., Griffiths, M. D., Kraus, S. W., Klein, V., Fuss, J., & Demetrovics, Z. (2020). The development of the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Scale (CSBD-19): An ICD-11 based screening measure across three language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9*(2), 247-258.
- Bóthe, B., Tóth-Király, I., Potenza, M. N., Griffiths, M. D., Orosz, G., & Demetrovics, Z. (2019). Revisiting the role of impulsivity and compulsivity in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6*(2), 166-179.
- Bottesi, G., Ghisi, M., Ouimet, A. J., Tira, M. D., & Sanavio, E. (2015). Compulsivity and impulsivity in pathological gambling: does a dimensional - transdiagnostic approach add clinical utility to DSM-5 classificatio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31*(3), 825-847.
- Brand, M., Wegmann, E., Stark, R., Müller, A., Wölfling, K., Robbins, T. W., & Potenza, M. N. (2019). The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I-PACE) model for addictive behaviors: Update, generalization to addictive behaviors beyond internet-use disorders, and specification of the process character of addictive behavior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04*, 1-10.

- Brand, M., Young, K. S., Laier, C., Wölfling, K., & Potenza, M. N. (2016). Integrating psychological and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specific Internet-use disorders: An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I-PACE) model.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71*, 252-266.
- Campbell-Sills, L., Barlow, D. H., Brown, T. A., & Hofmann, S. G. (2006). Acceptability and suppression of negative emotion in anxiety and mood disorders. *Emotion*, *6*(4), 587.
- Cheng, C., Sun, P., & Mak, K. K. (2015). Internet addic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voidant coping and coping inflexibility as psychological mechanism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8*(9), 539-546.
- Connor, J., Madhavan, S., Mokashi, M., Amanuel, H., Johnson, N. R., Pace, L. E., & Bartz, D. (2020). Health risks and outcomes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 wom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266*, 113364.
- Corstorphine, E. (2006). Cognitive - emotional - behavioural therapy for the eating disorders: Working with beliefs about emotion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The Professional Journal of the Eating Disorders Association*, *14*(6), 448-461.
- Coskunpinar, A., Dir, A. L., & Cyders, M. A. (2013). Multidimensionality in impulsivity and alcohol use: A meta analysis using the UPPS model of impulsivity.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7*(9), 1441-1450.
- Cyders, M. A., Coskunpinar, A. & VanderVeen, J. D. (2016). *Urgency: A common transdiagnostic endophenotype for maladaptive risk taking*. In V. Zeigler-Hill & D. K. Marcus (Eds.), *The dark side of personality: Science and practice in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pp. 157 - 18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yders, M. A., & Smith, G. T. (2008). Emotion-based dispositions to rash action: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Psychological Bulletin*, *134*(6), 807.
- Daly, M., & Robinson, E. (2021). Psychological distress and adaptation to the COVID-19 crisi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36*, 603-609.
- Damian, R. I., Spengler, M., Sutu, A., & Roberts, B. W. (2019). Sixteen going on sixty-six: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ality stability and change across 50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7*(3), 674.
- Dawe, S., & Loxton, N. J. (2004). The role of impulsivity in the development of substance use and eating disorder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28*(3), 343-351.
- de Lima, C. V. C., Cândido, E. L., da Silva, J. A., Albuquerque, L. V., de Menezes Soares, L., do Nascimento, M. M., ... & Neto, M. L. R. (2020). Effects of quarantine on mental health of populations affected by Covid-19.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5*, 253-254.
- Derbyshire, K. L., & Grant, J. E. (2015). Compulsive sexual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2), 37-43.
- Edwards, E. R., & Wupperman, P. (2019). Research on emotional schemas: A review of findings and challenges. *Clinical Psychologist*, *23*(1), 3-14.
- Efrati, Y., Shukron, O., & Epstein, R. (2019). Compulsive sexual behavior and sexual offending: Differences in cognitive schemas,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8*(3), 432-441.
- Elhai, J. D., Yang, H., Dempsey, A. E., & Montag, C. (2020). Rumination and negative smartphone use expectancies are associated with greater levels of

-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latent class analysis. *Psychiatry Research*, *285*, 112845.
- Engel, J., Kessler, A., Veit, M., Sinke, C., Heitland, I., Kneer, J., Hartmann, U., & Kruger, T. H. (2019). Hypersexual behavior in a large online samp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igns of coercive sexual behavior.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8*(2), 213-222.
- Giugliano, J. (2006). Out of control sexual behavior: A qualitative investiga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3*(4), 361-375.
- Goldman, M. L., Druss, B. G., Horvitz-Lennon, M., Norquist, G. S., Kroeger Ptakowski, K., Brinkley, A., ... & Dixon, L. B. (2020). Mental health policy in the era of COVID-19. *Psychiatric Services*, *71*(11), 1158-1162.
- Grubbs, J. B., Grant, J. T., Lee, B. N., Hoagland, K. C., Davidson, P., Reid, R. C., & Kraus, S. W. (2020). Sexual addiction 25 years on: a systematic and methodological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1925*.
- Grubbs, J. B., Lee, B. N., Hoagland, K. C., Kraus, S. W., & Perry, S. L. (2020). Addiction or transgression? Moral incongruence and self-reported problematic pornography use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8*(5), 936-946.
- Gössling, S., Scott, D. & Hall, C. M. (2020). Pandemics, tourism and global change: a rapid assessment of COVID-19.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9*(1), 1-2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ayes, A. F. (2021). *The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4.0)*. Hayes, A. F. <https://www.processmacro.org>
- Hershberger, A. R., Um, M., & Cyders, M. A.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S-P impulsive personality traits and substance use psychotherapy outcomes: A meta-analysi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78*, 408-416.
- Hertz-Palmor, N., Moore, T. M., Gothelf, D., DiDomenico, G. E., Dekel, I., Greenberg, D. M., ... & Barzilay, R. (2021). Association among income loss, financial strain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COVID-19: evidence from two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1*, 1-8.
- Ibarra, F. P., Mehrad, M., Mauro, M. D., Godoy, M. F. P., Cruz, E. G., Nilforoushzadeh, M. A., & Russo, G. I. (2020).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sexual behavior of the population. The vision of the east and the west. *International Brazilian Journal of Urology*, *46*(1), 104-112.
- Jahanshahi, A. A., Dinani, M. M., Madavani, A. N., Li, J., & Zhang, S. X. (2020). The distress of Iranian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More distressed than the Chinese and with different predictors.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7*, 124-125
- Kafka, M. P. (2010a). Hypersexual disorder: A proposed diagnosis for DSM-V.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2), 377-400.
- Kafka, M. P. (2010b). "What is sexual addiction?" A response to Stephen Levin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6*(3), 276-281.
- Kale, D., Stautz, K., & Cooper, A. (2018). Impulsivity related personality traits and cigarette smoking in adults: A meta-analysis using the UPPS-P model of impulsivity and reward sensitivit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85*, 149-167.
- Kaplan, M. S., & Krueger, R. B. (2010).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of hyper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47*(2-3), 181-198.

- Keni, R., Alexander, A., Nayak, P. G., Mudgal, J., & Nandakumar, K. (2020). COVID-19: emergence, spread, possible treatments, and global burden.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216.
- Killgore, W. D., Cloonan, S. A., Taylor, E. C., & Dailey, N. S. (2020). Loneliness: A signature mental health concern in the era of COVID-19. *Psychiatry Research, 290*, 113117.
- Kim, H. Y. (2013). Statistical notes for clinical researchers: assessing normal distribution (2) using skewness and kurtosis. *Restorative Dentistry & Endodontics, 38*(1), 52.
- Kingston, D. A., & Bradford, J. M. (2013). Hypersexuality and recidivism among sexual offender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0*(1-2), 91-105.
- Kraus, S. W., Krueger, R. B., Briken, P., First, M. B., Stein, D. J., Kaplan, M. S., Voon, V., Abdo, C. H., Grant J. E., Atalla, E., & Reed, G. M. (2018). Compulsive sexual behaviour disorder in the ICD 11. *World Psychiatry, 17*(1), 109.
- Kraus, S. W., Voon, V., & Potenza, M. N. (2016). Should compulsive sexual behavior be considered an addiction? *Addiction, 111*(12), 2097-2106.
- Kreuter, F., Presser, S., & Tourangeau, R. (2008). Social desirability bias in cati, ivr, and web surveys: the effects of mode and question sensitivity. *Public Opinion Quarterly, 72*(5), 847-865.
- Laier, C., & Brand, M. (2017). Mood changes after watching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re linked to tendencies towards Internet-pornography-viewing disorder. *Addictive Behaviors Reports, 5*, 9-13.
- Lehmiller, J. J., Garcia, J. R., Gesselman, A. N., & Mark, K. P. (2021). Less sex, but more sexual diversity: Changes in sexual behavior during the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Leisure Sciences, 43*(1-2), 295-304.
- Lew-Starowicz, M., Lewczuk, K., Nowakowska, I., Kraus, S., & Gola, M. (2020). Compulsive sexual behavior and dysregulation of emotion. *Sexual Medicine Reviews, 8*(2), 191-205.
- Li, W., Yang, Y., Liu, Z. H., Zhao, Y. J., Zhang, Q., Zhang, L., ... & Xiang, Y. T. (2020). Progres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16*(10), 1732.
- Lim, S. & Kim, S. (2018). Validation of a short Korean version of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Asia Pacific Psychiatry, 10*(3), e12318.
- Liu, S., Heinzl, S., Haucke, M. N., & Heinz, A. (2021). Increased psychological distress, loneliness, and unemployment in the spread of COVID-19 over 6 months in Germany. *Medicina, 57*(1), 53.
- Loree, A. M., Lundahl, L. H., & Ledgerwood, D. M. (2015). Impulsivity as a predictor of treatment outcome in substance use disorders: Review and synthesis. *Drug and Alcohol Review, 34*(2), 119-134.
- Lynam, D. R. (2013).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Unpublished Technical Report.
- Manasse, S. M., Espel, H. M., Schumacher, L. M., Kerrigan, S. G., Zhang, F., Forman, E. M., & Juarascio, A. S. (2016). Does impulsivity predict outcome in treatment for binge eating disorder? A multimodal investigation. *Appetite, 105*, 172-179.
- Manser, R., Cooper, M., & Trefusis, J. (2012). Beliefs about emotions as a metacognitive construct: Initial development of a self report questionnaire measure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emotion regulation. *Clinical Psychology &*

- Psychotherapy*, 19(3), 235-246.
- Martin, L. E., & Potts, G. F. (2009). Impulsivity in decision-making: An event-related potential investig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3), 303-308.
- McGinty, E. E., Presskreischer, R., Han, H., & Barry, C. L. (2020). Psychological distress and loneliness reported by US adults in 2018 and April 2020. *JAMA*, 324(1), 93-94.
- McKeague, E. L. (2014). Differentiating the female sex addict: A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themes of gender difference used to inform recommendations for treating women with sex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1(3), 203-224.
- McKibbin, W. & Fernando, R. (2021). The global macroeconomic impacts of COVID-19: Seven scenarios. *Asian Economic Papers*, 20(2), 1-30.
- Megalakaki, O., Kokou-Kpolou, C. K., Vaudé, J., Park, S., Iorfa, S. K., Cénat, J. M., & Derivois, D. (2021). Does peritraumatic distress predict PTSD,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during and after COVID-19 lockdown in France?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37, 81-88.
- Mestre-Bach, G., Blycker, G. R., & Potenza, M. N. (2020). Pornography use in the setting of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9(2), 181-183.
- Mohammed, A., Sheikh, T. L., Gidado, S., Poggensee, G., Nguku, P., Olayinka, A., ... & Obiako, R. O. (2015). An evalua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social support of survivors and contacts of Ebola virus disease infection and their relatives in Lagos, Nigeria: a cross sectional study— 2014. *BMC Public Health*, 15(1), 1-8.
- Moon, C., Travaglino, G. A., & Uskul, A. K. (2018).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endors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n exploratory study comparing individuals from North America and South Korea. *Frontiers in Psychology*, 9, 2262.
- Odling, B. L., Lust, K., Schreiber, L. R., Christenson, G., Derbyshire, K., Harvanko, A., Golden, D., & Grant, J. E. (2013). Compulsive sexual behavior in young adults.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25(3), 193-200.
- OECD (2021). *Internet access (indicator)*. OECE. Retrieved September 28, 2021, doi: 10.1787/69c2b997-en
- Oldershaw, A., DeJong, H., Hambrook, D., Broadbent, H., Tchanturia, K., Treasure, J., & Schmidt, U. (2012). Emotional processing following recovery from anorexia nervosa.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0(6), 502-509.
- Orlowski, S., Tietjen, E., Bischof, A., Brandt, D., Schulte, L., Bischof, G., ... & Rumpf, H. J. (2020). The association of cognitive distortions and the type of gambling in problematic and disordered gambling. *Addictive Behaviors*, 108, 106445.
- Predatu, R., David, D. O., & Maffei, A. (2020). The effects of irrational, rational, and acceptance beliefs about emotions on the emotional response and perceived control of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5, 109712.
- Qiu, J., Shen, B., Zhao, M., Wang, Z., Xie, B., & Xu, Y. (2020). A nationwide survey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people in the COVID-19 epidemic: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General Psychiatry*, 33(2), e100213.
- Reid, R. C., Temko, J., Moghaddam, J. F., & Fong, T. W. (2014). Shame, rumination, and self-compassion in men assessed for hypersexual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 20(4), 260-268.

- Rimes, K. A., & Chalder, T. (2010). 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validity, reliability and sensitivity to chang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8*(3), 285-292.
- Rimes, K. A., & Wingrove, J. (2013).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for people with chronic fatigue syndrome still experiencing excessive fatigue after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 pilot randomized stud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0*(2), 107-117.
- Roberts, B. W., Luo, J., Briley, D. A., Chow, P. I., Su, R., & Hill, P. L. (2017). A systematic review of personality trait change through inter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43*(2), 117.
- Schag, K., Rennhak, S. K., Leehr, E. J., Skoda, E. M., Becker, S., Bethge, W., ... & Giel, K. E. (2019). IMPULS: impulsivity-focused group intervention to reduce binge eating episodes in patients with binge eating disorder -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88*(3), 141-153.
- Schiebener, J., & Brand, M. (2015). Decision making under objective risk conditions - a review of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strategies, feedback processing, and external influences. *Neuropsychology Review, 25*(2), 171-198.
- Schultz, K., Hook, J. N., Davis, D. E., Penberthy, J. K., & Reid, R. C. (2014). Nonparaphilic hypersexu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0*(6), 477-487.
- Schwerdtle, P. M., De Clerck, V., & Plummer, V. (2017). Experiences of Ebola survivors: causes of distress and sources of resilience.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32*(3), 234-239.
- Shah, S. M. A., Mohammad, D., Qureshi, M. F. H., Abbas, M. Z., & Aleem, S. (2021). Prevalenc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correlates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 a global population,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7*(1), 101-110.
- Shiels, M. S., Almeida, J. S., García-Closas, M., Albert, P. S., Freedman, N. D., & de González, A. B. (2021). Impact of population growth and aging on estimates of excess US death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arch to August 2020.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74*(4), 437-443.
- Sinclair, D. L., Vanderplasschen, W., Savahl, S., Florence, M., Best, D., & Sussman, S. (2021). Substitute addic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9*(4), 1098-1102.
- Siu-ming, T., Phyllis, K. S. W., Cherry, H. L. T., Kwok, D. K., & Lau, C. D. (2019). Sexual compulsivity, sexual self-concept, and cognitive outcomes of sexual behavior of young Chinese Hong Kong males with compulsive sexual behavior: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4*, 104400.
- Sperry, S. H., Lynam, D. R., Walsh, M. A., Horton, L. E., & Kwapil, T. R. (2016). Examining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impulsivity in daily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4*, 153-158.
- Sulkowski, M. L., Dempsey, J., & Dempsey, A. G. (2011).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on binge eating in female college students. *Eating behaviors, 12*(3), 188-191.
- Sydenham, M., Beardwood, J., & Rimes, K. A. (2017). Beliefs about emotions, depression, anxiety and fatigue: A mediational analysi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5*(1), 73-78.
- Tran, L., & Rimes, K. A. (2017). Unhealthy perfectionism,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 emotional suppression, and depression in students: A mediational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0*, 144-147.
- Trotzke, P., Müller, A., Brand, M., Starcke, K., & Steins-Loeber, S. (2020). Buying despite negative consequences: Interaction of craving, implicit cognitive processes, and inhibitory control in the context of buying-shopping disorder. *Addictive Behaviors*, *110*, 106523.
- Walton, M., Murray, E., & Christian, M. D. (2020). Mental health care for medical staff and affiliated healthcare work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uropean Heart Journal: Acute Cardiovascular Care*, *9*(3), 241-247.
- Wenzlaff, R. M., & Wegner, D. M. (2000). Thought sup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59-91.
- Wéry, A., & Billieux, J. (2016). Online sexual activities: An exploratory study of problematic and non-problematic usage patterns in a sample of me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6*, 257-266.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4), 669-689.
- Witteveen, D., & Velthorst, E. (2020). Economic hardship and mental health complaints during COVID-19.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44), 27277-27284.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March).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icd.who.int/browse11/1-m/en#>
- Yoon, I. S., Houang, S. T., Hirshfield, S., & Downing, M. J. (2016). Compulsive sexual behavior and HIV/STI risk: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Current Addiction Reports*, *3*(4), 387-399.
- Zapolski, T. C., Cyders, M. A., & Smith, G. T. (2009). Positive urgency predicts illegal drug use and risky sexual behavio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3*(2), 348.
- Zsila, Á., Bóthe, B., Demetrovics, Z., Billieux, J., & Orosz, G. (2020). Further exploration of the S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s factor structure: Evidence from a large Hungarian sample. *Current Psychology*, *39*(1), 378-388.

원고접수일: 2021년 11월 12일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2일

게재결정일: 2022년 1월 10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2. Vol. 27, No. 2, 211 - 233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COVID-19 and Compulsive Sexual Behavior: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and Impulsivity

Kyeongwoo Park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risk of compulsive sexual behavior has increased with the spreading of COVID-19.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COVID-19 on compulsive sexual behavior, and to test potential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and impulsivity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04 adults ($M_{\text{age}}=45.01$, $SD_{\text{age}}=13.54$) were recruited online, and a set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COVID-19,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and impulsiv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significantly predicted higher levels of compulsive sexual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of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times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times impulsivity such that psychological distress predicted compulsive sexual behavior only when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were high, and this interaction was significant only under the condition of high impulsiv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literature by proposing an integrated model in which emo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traits interact to predict compulsive sexual behavior under a prolonged pandemic context where the overall vulnerability of the society has increased.

Keywords: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psychological distress, beliefs about emotions, impulsivity, COVID-19